

危機狀況의 克服

박계동 / 본회 이사
동형전선(주) 사장



多事多難했던 庚午年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發展에心血을 기울여주신 電子工業人 및有關機關 여러분께 真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들이켜보면 今年은 例年에 比하여 큰 事件과 政治, 經濟, 社會의 으로不安한 要素들이 유난히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 中에서도 특히 國內의 經濟狀況은 政局의 不安과 함께 賃金 및 物價의 急上昇, 輸出不振으로 因한 國際收支赤字等의 經濟與件과 技術開發, 投資, 人力難等의 產業與件等이 우리 電子産業分野는 물론, 產業全般에 걸쳐 전혀 好轉되지 않았으며, 國際的으로는 貿易摩擦, 技術移轉의 회피, 技術特許等 世界技術先進國들의 保護貿易主義로의 回歸等과 함께 「우루파이」 라운드(UR)」의 協商問題等 海外與件도 惡化되어 難題로 散績해 있고 특히 最近에는 페르시아灣事態가 強力한 惡材로 作用하고 있어 우리의 經濟現實은 매우 深刻한 狀況이라해도 過言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社會의 으로는 過消費風潮의 蔓延으로 階層間의 乖離가 深化되고 있으며, 勤勞者들은 製造業等 1, 2次 產業보다는 3次 產業인 서비스業에 從事하려는 勞

動力의 異狀移動現狀이 發生하여 製造業等 絶對的으로 勞動力이 必要한 分野에는 空洞化 現狀이增加하고 있어 社會의 問題일뿐만 아니라 經濟에도 미치는 影響이 至大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難題들이 明年에도 好轉되지 않을 것으로豫測되는 바. 全國民과 더불어 政府當局과 우리 電子工業人들은 當面한 經濟危機狀況 克服은 물론, 長期의이고 根本의인 對策樹立에 슬기와 智慧를 結集할 때입니다.

이러한 經濟的 危機狀況이 國內의 賃金上昇, 物流費用의 增加, 原資材難, 技術分野의 投資不足等으로 因한 價格競爭力 및 品質競爭力의喪失이라고 볼때, 우리 電子工業人은 물론 政府의 技術開發에 對한 長期의이고 果敢한 投資와 徹底한 品質管理의 定着만이 解決의 方法이며, 더 나아가서는 市場의 多邊化, 品質의 高級化만이 우리의 살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便乘하여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活路를 摸索하기 爲하여 現在 世界的인 外國業體들이 開發 實用化한 高鮮明TV, 超精密 計測機器와 最尖端의 電子製品들은 물론 最新의 電子材料와 素材의 開發에 拍車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本人은 電子, 電氣分野인 基礎原資材 產業에 投身하여 우리나라 電子工業이 荒蕪地이던 時節 電子工業의 磐石을 다지는 使命感을 불태운지 어언 20餘年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은 質보다는 量爲主의 企業經營을 하고 있는바, 이제는 우리 電子工業도 高附加價值, 高生產性, 高技術의 新製品 開發에 總力を 기울여 質爲主의合理的經營을 圖謀하여야 하며, 우리 電子工業人은 물론 政府當局과 國民이 一致團結하여 오늘의 이 危機狀況을 슬기롭게 克服해야 할 것입니다.

庚午年을 마감하는 이때에, 그동안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發展은 물론 經濟發展에 獻身하신 國内外 電子工業人 여러분과 支援, 協力を 아끼지 않았던 有關機關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리며, 아울러 이에 從事하는 勤勞者 여러분들은 世界의 變化와 어려운 國內經濟, 社會의 與件을 直視하고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職業意識의 確立과 勤勞倫理의 定着에 온 힘을 기울여 自身의 生活安定과 企業의 發展이 곧 나라發展이요 愛國하는 길임을 自覺하고 當面한 經濟的 危機를 克服하는 길임을 銘心하여야 할 것입니다.